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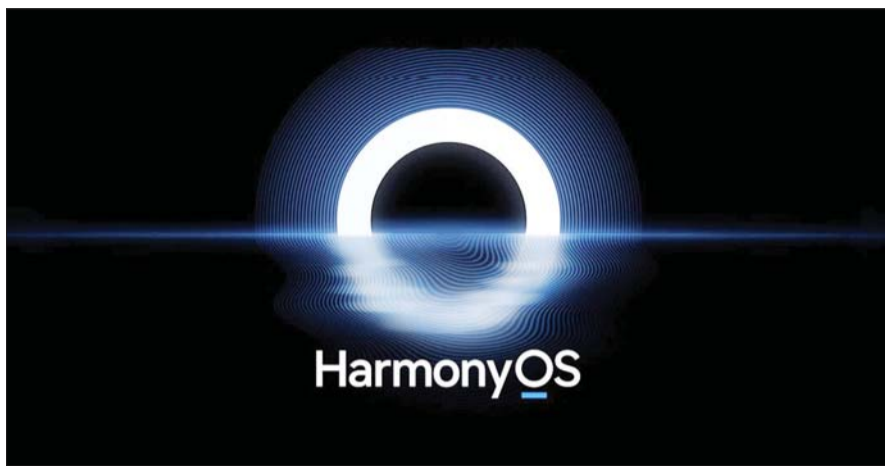
# 안드로이드와 작별한 화웨이... '하모니2' 반응은 시큰둥

美 제재 속 '국유화 OS' 매력 적어 기기호환, 앱 지원 등 성능 아쉬워 안드로이드 대체 불가능 전망 우세

화웨이의 자체 OS '하모니2'가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모니2가 출시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이미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넘어서기 힘들고, 미국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의 OS를 채택할 기업도 없기 때문이다.

## ◆하모니2 채택하는 기업 '전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던 스마트폰 사업은 핵심 부품 공급이 끊겨 직격탄을 맞았다. 화웨이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20%대에서 지금은 5% 밑으로 떨어졌다.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중국 밖에서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통신장비 기업을 벗어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없이 시장에서 생



화웨이 하모니2.

존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하모니2의 성공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화웨이가 하모니2의 기초 코드를 중국 공업정보화 산하 개방원자재단(Open Atom Foundation)에 기증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도 파트너로 참여한 이 재단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화웨이의 하모니2는 누구든지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모니2가 사실상 중국 정부에 귀속됐다는 말들이 나온다.

왕청루 화웨이 소비자부문 소프트웨어 담당 사장은 이에 대해 "모든 기업이 하모니2 코드를 가질 수 있다"며 "다른

기업들이) 화웨이의 특징을 더해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모니를 중국 기관과 기업이 쓰도록 유도해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모니2가 개방원자재단에 기초 코드를 기증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이후 중국경제망은 "하모니2는 중국 정보산업의 공동 재산이다"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하모니2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당장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인 오포와 샤오미는 하모니2를 탑재했을

때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하모니2 탑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달 중국 언론들을 통해 중국 내륙 외에 대만 노키아에서도 하모니2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노키아는 즉각 부정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근거가 '보안'이었다는 점에서 화웨이 OS의 국유화는 다른 기업들이 하모니2를 채택하는데 장애물이 된 것으로 예상된다. 하모니2를 채택했다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중국만 사용 가능

초기 OS인 하모니2는 현재 오류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팽배하다. 중국 화웨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안드로이드 OS를 하모니2로 업그레이드한 뒤에 전력 소모가 빨라졌다는 후기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달 공지를 통해 하모니 OS로 업그레이드를 한 직후 휴대폰에 발열, 오류, 느린 충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업그레이드 후 시스템에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설치 2~3일 후 정상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나마 중국에서

는 AS센터를 통해 환불받거나 시스템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제재 이후 화웨이 AS센터가 줄어든 해외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편, 화웨이는 자사에서 출시하는 노트북, 스마트워치, 전기자동차에도 하모니2를 탑재해 OS 생태계를 넓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현재 안드로이드와 애플도 양분되는 앱 생태계 시장에서 화웨이가 얼마나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시장을 생각했을 때 10년 이상 생태계가 구축된 안드로이드에 비해 후발주자인 하모니2가 기기 호환이나 앱 지원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베리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과거 독자적인 스마트폰 운영체제 개발을 시도했지만 결국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metroseoul.co.kr

## SKT, 스벅과 '일회용컵 없는 제주' 만든다

SKT, AI 무인 다회용컵 회수기 설치 보증금 지불하고 반납하면 돌려받아 제주협재점 등 4개 매장서 시범 운영

SK텔레콤은 제주 지역의 폐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무인 다회용컵 회수기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스타벅스코리아,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친환경 스타트업 오이스터에이블 등과 함께 제주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환경 소비 권장 차원에서 '에코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 참여 기관 및 기업들은 일회용컵 없는 매장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6일부터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DT점, 제주애월DT점, 제주칠성점, 제주협재점 등 4개 시범매장에서 음료를 다회용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에코제주 프로젝트' 참여사들은 오



제주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무인 다회용컵 반납기를 통해 사용을 마친 컵을 반납하는 모습. /SKT

는 10월까지 제주지역 스타벅스 전 매장의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면 교체하고, 이후 제주 토종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에이바우트커피와 핀크스골프클럽 등으로도 다회용컵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SKT와 스타벅스는 고객이 음료 구

매 시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다회용컵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피해빗 앱과 스타벅스 앱을 개편했고, 스타벅스 시범매장이나 제주국제공항에서 사용을 마친 컵을 반납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인 다회용컵 회수기를 설치했다.

SKT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무인 다회용컵 회수기가 지정된 컵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비전 AI 기반 데이터 적재·학습·배포 작업을 계속해 왔다. 이를 통해 다회용컵 회수기 제조를 맡은 환경 스타트업 '오이스터에이블'과의 동반성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회수된 다회용컵은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가 운영하는 세척장으로 옮겨지며, 다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고압세척·살균건조 작업을 거친다. 다회용컵은 순수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돼 수명이 다해도 100% 재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세척장 운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채윤정 AI 전문가 echo@

## SK(주) C&C, ESG 글로벌 인증 '5관왕'

ESG 관리체계 고도화 '결실'

SK(주) C&C가 환경·안전보건·부패방지·품질관리·정보보호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5개 영역에서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다.

SK(주) C&C는 6일 국제 표준 인증기관 영국표준협회(BSI)에서 인증하는 '환경경영시스템·안전보건경영시스템·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획득해 재인증을 마친 품질경영시스템·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까지 합하면 ESG 분야 글로벌 인증 5관왕을 달성한 것이다.

환경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환경 문제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조직

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행위를 사전에 식별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영시스템 체계를 갖춘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한다. 환경·안전보건·부패방지 인증은 ESG 분야에서 대표적인 글로벌 인증이다.

SK(주) C&C는 기존 사업수행 중심의 경영인증인 품질경영·정보보호 인증에서 환경과 안전·부패방지 분야 인증까지 범위를 확대해 ESG 관리체계 고도화 준비에 나섰다. 먼저 대표이사의 환경경영방침, 안전보건 방침,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관련 사규를 제정했다. 환경·안전보건·부패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내부 의사 소통 채널을 개설, 구성원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강준혁 수습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NHN, 핀테크 中에 금융클라우드 공급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선정

NHN은 통합 클라우드 기업 NHN Cloud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2021년도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 공급 서비스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NHN은 전년도 수행사인 코스콤과 협력해 국내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인프라 및 24시간 기술 지원 등

핀테크 기업에 맞춤형 클라우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기반의 별도 물리 환경 제공, 전문 인력을 통한 보안 및 운영 관리 서비스, 보안 인프라 구축, 마이그레이션, 플랫폼 연계, 비용 절감 방안 등 윈윈 서비스를 지원한다.

오픈스택 기반의 NHN Cloud는 금융보안원의 가이드 전체 항목(기본 보호조치 109개 및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

치 32개)에 대해 평가 100%를 만족하며,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진행하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 보조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핀테크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사업 수행 평가를 통해 연간 최대 9600만 원까지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60개 기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준혁 수습기자

문화타운서 초대권·할인 등 제공

CJ올리브네트웍스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 CJ ONE이 여름휴가 및 방학 시즌을 맞아 다양한 문화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다양한 문화 혜택을 모아 놓은 CJ ONE 문화타운에서는 미술관, 뮤지컬, 오페라,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초대권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VIP 대상으로 한정 제공하던 제주 '빛의 병커' '모네, 르누아르...사

갈展' 10% 할인 혜택을 오는 25일까지 전 회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여름휴가 및 방학 시즌을 맞아 제주로 떠나는 회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CGV에서 관람 가능한 오페라 공연 혜택도 마련됐다. CJ ONE은 CGV 골드클래스와 씨네드쉐프에서 관람할 수 있는 7월의 월간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야외공연 실황을 7월 한 달간 전 회원에게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강준혁 수습기자

## CJ ONE, 뮤지컬 등 휴가철 문화혜택 '풍성'